

김창진 金昌辰

서울교대, 國際大 國語國文學科 졸업.

現 草堂大學校 教養學部 教授 (圖書館長 歷任)

韓國教育文化融複合學會 副會長,

韓國語文教育研究會 全南地域 會長,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研究教授

저서 : 『教養人을 위한 漢字·漢文』, 共著, 傳統文化研究會, 2002.

『홍부전』, 중문화사, 2005.

『박타령』, 지만지, 2008.

『배비장전』, 지만지, 2008.

『변강쇠전』, 지만지, 2009.

『두껍전』, 지만지, 2009.

『담 明心寶鑑』, 탐출판사, 2010.

『務安(무안) 關聯(관련) 備邊司謄錄(비변사등록)』, 시와 사람, 2012.

## 한글전용은 違憲이다

한글전용은 違憲이다. 世宗大王은 한글전용을 하자고 訓民正音を 만든 것이 아니다. 세종대왕은 國漢字混用하고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써서 지은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月印釋譜』 등을 누구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들은 모두 한자어는 한자로, 토박이말은 훈민정음으로 구별하여 적혀 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세종대왕의 뜻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은 한자와 훈민정음을 조화롭게 섞어 쓰하고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세종대왕에서 비롯한 國漢字混用의 전통은 朝鮮王朝 내내 이어져 내려왔다. 각종 佛經諺解와 儒經諺解, 『杜詩諺解』 등 훈민정음을 쓴 글들 대부분은 국한자혼용이었다. 한자와 훈민정음을 함께 적는 국한자혼용을 하거나 한자 뒤에 그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적는 국한자병용을 하였다. 한자를 쓰던 지식인 중에 소수가 사적으로 한글 편지를 쓰거나 古小說을 짓거나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자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글전용과는 다르다.

한글전용이라는 異端은 개화기 때 생겨났다. 한글전용은 서양인과 서양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단이다. 한자를 모르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서양인 선교사들은 한글 聖經을 읽히고자, 美國人 필립 제이슨(韓國名 徐載弼)은 『독립신문』을 읽히고자 한글전용했다. 이렇게 한글전용은 한자를 모르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宗教的·政治的 目的으

로 글을 읽히고자 한 便法으로 시작했다. 필립 제이슨의 제자 周時經은 선진국인 미국이 소리글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글자를 써야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자를 이상적인 글자로 보고, 한글도 로마자처럼 풀어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시경은 서양 사대주의자였다. 주시경은 세종대왕을 존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름 붙인 ‘訓民正音’을 자기 마음대로 ‘한글’이라 바꾸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자와 훈민정음을 섞어 쓴 국한자혼용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글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주시경은 世宗大王에 반기를 든 이단자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글전용론자들은 바로 그 이단자인 주시경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한글전용론은 言語學的 이치로 보면 착각이며 망상이다. 왜냐하면 글자가 쉽다는 것하고 그 글자로 적은 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어 알파벳은 쉽지만 영어로 된 글이 쉬운가? 한자어는 쉬운 한글로 적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려운 한자로 적으면 이해가 잘 된다. 따라서 한글이 쉬우니 한글로만 글을 적으면 내용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은 착각이며 망상이다.

이렇게 한글전용론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성을 지닌 지식인들은 이단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대왕에서 비롯한 국한자혼용은 조선왕조는 물론 開化期, 日帝強占期,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내내 한국어 문자 표기에서 정통이자 주류였다. 반면에 주시경에서 비롯한 한글전용은 1980년대까지도 이단이자 소수 비주류에 머물렀다. 그러니 국한자혼용이 옳으냐 한글전용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애초부터 논쟁거리가 안 된다. 국한자혼용이 한국어 문자 表記史의 정통일 뿐 아니라 주류인데, 도대체 이단이자 소수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 우리 한국인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을 따라야지 異端者 주시경을 따라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날처럼 꼬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문정책으로 정통이자 주류인 국한자혼용을 따르지 않고 이단이자 소수인 한글전용을 택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한글전용법」과 2005년에 「국어기본법」으로 한글전용을 어문정책으로 선택하는 최악의 실책을 범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문자선택권을 빼앗아버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글전용은 이단이므로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한글전용의 결과는 최악이다. 한국어를 망치고 한국인의 국어능력을 하향평준화시켰다. 몇 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현행 한글은 한국어의 표준발음을 적지 못한다. 그래서 한글전용 65년 만에 우리말 발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둘째, 오늘날 한글전용으로 인해서 한국어의 의미 전달력이 약해졌다. 정확히 의미를 알 수 없는 글들이 너무 많다. 한글로 적힌 한자어 고유명사는 암호이다. 셋째, 한자문화권 외래어 표기에서 한글로 한국어를 일부러 내쫓고 日本語, 中國語를 적고 있다. 이런 賣國奴的인 일까지 저지른다. 넷째, 한글전용이 한자어와 한자를 내쫓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영어와 로마자가 마음 놓고 들어오고 있다. 한글전용은 외국어를 우리말 안에 불러들이는 앞잡이 노릇마저 하고 있다. 다섯째, 한글전용은 한국인들에게 자기 이름과 부모 성함도 본 글자인 漢字로 적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한마디로 한국인을 바보·상놈으로 만들어버렸다. 여섯째, 한글전용은 조상들이 남겨준 한문고전의 해독은커녕 자기 집안의 족보

## 6 한글전용은 違憲이다

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 곧 한민족을 뿌리 없는 야만족으로 타락시켜 버렸다. 요컨대, 한글전용은 한국어를 저질 언어로 타락시켰으며, 한국인의 국어능력을 하향평준화시켰고,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타락시켜 버렸다.

한글전용을 65년간 실시한 결과, 한국 사회는 ‘바보들의 天國’이 되어 버렸다. 한글전용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은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력은 저하된다. 또 한국 사회에서 지성은 실종되었다. 그래서 ‘人文學의 危機’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출판사도, 신문사도 위기라고 한다. 모두 한글전용이라는 천박한 어문정책이 낳은 부산물이자 후유증이다.

이에 뜻있는 국민들은 한국어 표기에서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에 李漢東 前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2일에 憲法裁判所에 「國語基本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違憲訴訟에는 모두 333명이 참여하였는데, 필자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을 받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송대리자로서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을 선임하였다. 그리하여 그 두 법무법인이 작성한 의견서가 2013년 7월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로 접수되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이 두 개의 의견서를 받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再反論書を 작성하여 보냈다. 필자도 그 재반론서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형식은 범무법인 「지평지성」과 「사랑」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 필자가 반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한글전용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동안 나왔던 관련 책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원래 고소설을 전공하는 학자인데, 잘못된 한글전용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에 울분을 느껴 한국어 正常化를 위한 연구에 빠져든 지 십여 년이 되었다. 이 책은 그 세월의 연구를 담고 있다.

우리 국민은 막연한 선입관으로 무조건 한글전용이 옳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많다. 우리 국민들이 부디 이 책을 읽고, 올바른 한국어 문자 표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이단을 버리고 정통을 회복해야 한다.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국한자혼용의 전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어도 살고, 한국인의 국어능력도 향상되며, 한민족의 민족정신도 되살아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2013년 10월

草堂大學校 教養學部 教授 金昌辰 삼가 씀

# 목 차

한글전용은 違憲이다 .....	3
제1부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의 意見書에 대한 反論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	11
2. 漢字의 性能에 대한 過小評價 .....	23
3. 한글전용이 人爲的·強制的인 것이라는 사실을 隱蔽 ...	45
4. 한글전용의 弊害에 대한 歪曲과 回避 .....	58
5. 國漢字混用이 韓國語 文字史의 主流라는 사실을 歪曲 ..	65
6. 漢字와 漢字語를 中國 文字와 中國語로 歪曲 .....	73
7. 漢字와 漢字語는 몰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前提 .....	96
8. 語文政策으로서 ‘한글전용’의 適合성에 대한 反論 .....	120
9. 憲法訴願 ‘請求期間 지남’에 대한 反論 .....	240
제2부 「國語基本法」의 違憲性	
I. 序 論 .....	245
II. 本 論 .....	246
1. ‘固有文字’라는 文字 選擇 基準의 誤謬 .....	246
(1) 文字는 ‘固有性’을 따지지 않는다 .....	247
(2) 訓民正音도 韓國語 ‘固有文字’가 아니다 .....	249
(3) 文字 選擇의 基準은 歷史성과 合理性 .....	249
2. 漢字가 韓國語의 文字인 根據 .....	252
(1) ‘歷史性’의 觀點 .....	252
(2) ‘合理性’의 觀點 .....	263

3. 「國語基本法」은 惡法이다 .....	271
(1) 국민의 文字 選擇權을 制限한 惡法 .....	271
(2) 客觀妥當性을 喪失한 偏頗的인 惡法 .....	274
(3) 國益에 커다란 損失을 끼치는 惡法 .....	277
4. 「國語基本法」은 違憲이다 .....	280
(1) 大韓民國 憲法 제9조 違反 .....	280
(2)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違反 .....	286
(3) 大韓民國 憲法 제11조 제1항 違反 .....	302
(4) 大韓民國 憲法 제22조 違反 .....	308
III. 結論 .....	316

### 제3부 한글전용의 歷史的 誤謬

I. 序 論 .....	319
II. 本 論 .....	320
1. 한글전용은 世宗大王의 뜻을 拒逆하는 異端 .....	320
(1) 한글전용은 漢字 모르는 百姓을 위한 便法으로 始作 .....	320
(2) 周時經 한글전용론의 本質은 ‘로마자 事大主義’ .....	325
(3) 日帝强占期 때 한글이 彈壓받았다는 것은 歷史歪曲 .....	328
(4) 幼稚한 自閉兒的인 ‘한글民族主義’ .....	332
2. 漢字廢止運動은 西洋人들과 그 追從者들의 陰謀 .....	341
(1) 中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	342
(2) 日本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	347
(3) 韓國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	353
(4) 越南의 漢字廢止運動 歷史 .....	369
III. 結 論 .....	375

## 제1부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의 意見書에 대한 反論

法務法人 「지평지성」과 「사랑」은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반론하고 있다. 그 두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대해 필자가 반론하는 내용을 제 I 부에 실는다. 그 내용들은 분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모두 9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항목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사랑」의 주장을 먼저 앞에 원문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자가 반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진행의 편의상 그 두 법무법인의 주장은 별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논의한다. 구별을 위하여, 법무법인의 주장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필자의 글은 보통 글씨로 표시한다.

### 1. 한글의 性能에 대한 過大評價

1-1) “한글은 소리와 소리에 담긴 뜻을 함께 전달하는 문자입니다.”<sup>1)</sup>

#### 1-1)에 대한 反論

한글이 뜻을 전달하는 것은 토박이말에 한정된다. 한글은 한자어는 정확한 發音도, 정확한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방

1) 「지평지성」, P.34.